

제2회 재외동포NGO활동가 대회 (2005년 11월 1일 화 ~ 4일 금)

- 주최 : KIN(Korea International Network)
 - 주관 : 제2회재외동포NGO활동가대회추진위원회(10개 단체)
동북아두레공동체운동, 동북아평화센터, 동북아평화연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남대학교세계한상문화연구원,
중국동포의집·외국인노동자의집, 중국동포타운신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한국청년연합회(KYC),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 후원 : 재외동포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코리아포커스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시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축사

권영길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재외동포 NGO 활동가 대회가 올해 두번 째로 그 막을 열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국에서 달려오신 NGO 여러분과 재외동포추진위원회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재외동포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생생한 자화상이자 대한민국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해결되지 못한 채 여전히 산적해있는 동포사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는 우리가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어떤 국가를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물음과도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의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도 유례없이 뜨거워지고 있으나, 여전히 동포들의 권익증진과 정체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비전과 체계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들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의 차별없는 시행을 촉구하며 농성 중이고,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아 미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 동포도 헌법소원에 동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정책 소관부처인 외교통상부는 한결같은 논리로 재외동포전담부서의 설치를 반대해왔고, 지난 9월 본 의원이 주최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도 ‘동포’와 ‘외교’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재외동포 NGO 활동가 대회는 그간 방치해 둔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들의 목소리를 한국 사회에 직접 전달하는 창구이자 논의의 장으로써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발한 동포운동을 펼치고 있는 NGO여러분 들이 한국정부가 보다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선진적인 동포정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나아가 전세계 동포사회의 화합과 민족적 단결을 위한 여정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해방 60주년이 되는 올해 민족적·역사적 관점에서 한민족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이 심도깊게 모색될 수 있도록, 본 대회에서 풍성한 토론이 진행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